

# 일 대학의 남녀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김묘성 · 어용숙

동의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A Study on R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Uundergraduate Students of One University

Kim, Myo-Sung · Eo, Yong-Soo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ursing and Healthcare Sciences, Dong-eui University, Bu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RHPB) and related variables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to August, 2014 from 528 students.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tercourse experience was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verage item scores of the RHPB were 2.99 in male and 3.04 in female students. The related factors of RHPB were major, onset of first intercourse experience, and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in male students. Numbers of sexual partner, onset of first intercourse experience,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in female students were related to RHPB.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HPB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manage the reproductive health of undergraduate students.

**Key Words:** Reproductive health, Sexual knowledge, Internet use, Undergraduate students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급속한 정보화의 유입과 더불어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성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고 있다(Shin, Park, Bae, & Cha, 2010). 이에 따라 금욕과 절제를 중요시 하는 전통적 성개념에서 혼전성관계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적 성가치관으로의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되면서 성 경험을 가진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86.8%, 여학생의 62.3%가 서로 사랑을 하면 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Ha, 2004).

생식건강은 좁은 의미로는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인간이 성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생식기의 건강을 의미한

다(Shin et al., 2010). 넓은 의미로는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상태를 포함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3). 즉,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향유하며, 자녀출산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 총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식건강 증진행위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과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 생식과 관련된 건강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포함한 총체적 건강행위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 전파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안전한 성행위 준수, 생식기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규칙적인 유방검진과 생식기 검진 뿐 아니라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같은 건강생활실천 등의 건강증진행위 등이 포함된다(Ahn et al., 2008).

대학생이 속한 성인초기는 성인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이며, 성정체감과 성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

**주요어:** 생식건강, 생식지식, 성관련 콘텐츠 노출, 대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Eo, Yong-Sook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47340, Korea

Tel: +82-51-890-1557 Fax: +82-0505-182-6876 E-mail: nursingeo@deu.ac.kr

Received: 30 June 2015 Revised: 18 August 2015 Accepted: 27 August 2015

는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대학생은 입시위주의 억압된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생이 되면서 자율성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활발해지며 인터넷 관련 음란 영상물 노출이 많아져 외국보다 성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aton et al., 2012; Shin et al., 2010).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성경험률은 38.1%로 나타났으며,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11.6%가 임신경험이 있으며, 이 중 94.4%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Shin et al., 2010). 또한 불규칙하고 나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ang, Kim, & Yoon, 2012), 남학생의 42.4%, 여학생의 3.2%가 흡연을 하고 있었고, 남학생의 82.1%, 여학생의 75.3%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hn et al., 2008). 음주, 흡연과 더불어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장애 등으로 이어져 불임, 월경장애 등의 생식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협에 놓여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지식 수준은 실제적으로 매우 낮으며(Jo, 2014), 안전한 성생활의 지표인 성병감염률이 남학생은 4.5%, 여학생은 2.4%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볼 때(Ahn et al., 2008) 대학생들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매우 낮으며, 심각함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성건강에 국한하여 접근하거나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같은 생식건강과 관련된 건강증진행위를 생식건강과 따로 구분하여 보는 등 생식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진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성지식이 성행동과 관련성이 있으며(Jeon, Lee, & Rhee, 2004), 성관련 콘텐츠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성에 대한 허용성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9).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에 생식건강 지식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이 관련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식건강을 성행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생식기관과 생식능력뿐 아니라 정신, 사회적 건강을 포함한 생식건강이라는 통합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이론적 근거에 의해 개발된 생식건강증진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 요소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 행위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정도를 알아보고, 생식건강 지식 및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와 생식건강증진행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남녀대학생의 성경험 특성을 파악한다.

- 2) 남녀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생식건강 지식 및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를 파악한다.
- 3) 일반적, 성경험 특성에 따른 남녀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남녀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제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간의 생식건강증진행위 및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 대상은 B광역시 소재의 D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윤리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교수가 아닌 훈련된 학생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며 익명의 설문조사로 진행됨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서면동의 한 학생은 총 528명으로 남학생 283명, 여학생 245명이었다.

###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2문항(연령, 전공), 성경험 특성 6문항(성관계 경험, 첫경험 연령, 성관계 파트너수, 피임법 사용, 임신경험, 생식기질환경험)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생식건강증진행위, 생식건강지식, 성관련콘텐츠 노출이었다.

#### 1) 생식건강증진행위

생식건강증진행위는 Jo (2014)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식건강증진행위 척도를 도구개발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성용 58문항, 여성용 6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영역은 남성용과 여성용이 동일하게 정신사회적 생식건강, 생식기 관리, 생식능력 건강관리, 안전 성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남성용과 여성용의 생식건강증진행위 문항의 차이는 남녀의 생식기관의 차이로 인한 내용의 차이와 여성용의 경우 생식기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항들로 인해 남성용보다 6문항이 더 추가되었다. 이는 가임기인 여학생은 남학생과 달리 임신과 출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생리로 인해 생식기 부위의 위생이 남학생보다 더 요구되기 때문에 여학생에서만 도출되었다(Jo, 2014). 4점 Likert 도구로 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및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남학생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 여학생 도구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Jo, 2014), 본 연구에서 남학생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였고, 여학생 도구 Cronbach's  $\alpha = .82$ 였다.

2) 생식건강 지식

생식건강 지식은 Cha (2009)가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을 체크한 경우 1점, 오답을 체크한 경우 0점을 주어 총 점수범위가 최저 0점에서 최고 1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식건강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 (200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69$ 였으며, 본 연구에서 KR20 = .70이었다.

3) 성관련 콘텐츠 노출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Peter와 Valkenburg (2006)가 개발한 성관련콘텐츠 노출정도 측정도구를 Choi (2009)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남녀의 성관계나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6개 매체의 종류와 이용정도를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란물의 노출만을 측정하였던 선행연구와 달리 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19세 이상의 성인용 콘텐츠물의 노출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상파방송 재개 이후로 쉽게 일상생활에서 성관련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번도 없음'에 1점, '1년에 1-2번' 2점, '한 달에 1-2번' 3점, '일주일에 1-2번' 4점, '주 3회 이상'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점수는 6점에서 30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콘텐츠 노출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남학생 Cronbach's  $\alpha = .70$ , 여학생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201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진행하였으며, 다소 대답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있어 대답하기 곤란할 시에는 설문지를 중도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남자 300부, 여자 24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자료 남자 17부, 여자 4부를 제외하여 남자 283부, 여자 245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특성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생식건강 지식 및 성관련 콘텐츠 노출의 정도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성격특성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및 이와 관련된 제 변수들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성격특성 특성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남학생 23.23 ± 2.73세, 여학생 21.31 ± 1.44세이었고, 남학생은 22-25세가 49.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여학생은 21세 이하가 54.3%로 가장 많았다. 전공은 남학생은 자연과학계열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은 간호학과가 포함된 보건의료계열이 62.5%로 가장 많았다. 성관계 경험은 남학생의 76.7%, 여학생의 39.6%가 있다고 대

Table 1. General and Sexu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528)

Characteristic		Male	Female
		(n = 283)	(n = 245)
		n (%)	n (%)
Age (yr)	≤ 21	83 (29.3)	133 (54.3)
	22-25	141 (49.8)	111 (45.3)
	≥ 26	59 (20.9)	1 (0.4)
Major	Humanities & Social	98 (34.6)	51 (20.8)
	Public, Medical & Nursing	32 (11.3)	153 (62.5)
	Science	120 (42.4)	25 (10.2)
	Others	33 (11.7)	16 (6.5)
Sexual intercourse	No	66 (23.3)	148 (60.4)
	Yes	217 (76.7)	97 (39.6)
Onset of sexual intercourse*	< 19	64 (29.5)	14 (14.4)
	≥ 19	148 (68.2)	83 (85.6)
	No response	5 (2.3)	-
Number of sex partner*	1	32 (14.8)	54 (55.7)
	2-4	102 (47.0)	38 (39.2)
	≥ 5	81 (37.3)	5 (5.1)
	No response	2 (0.9)	-
Contraceptive practice*	No	5 (2.3)	53 (54.6)
	Yes	212 (97.7)	44 (45.4)
Pregnancy*	No	210 (96.8)	97 (100.0)
	Yes	7 (3.2)	-
STD history*	No	204 (94.0)	73 (75.3)
	Yes	13 (6.0)	24 (24.7)

\*Male (n = 217), Female (n = 97).

답하였다. 성경험자인 남학생의 217명, 여학생의 97명을 대상으로 성경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성경험연령은 남학생 19.25 ± 2.33세, 여학생 19.81 ± 1.39세였다. 남녀 대학생 대부분이 19세 이후 첫 성경험을 하였으나 성경험자 중 남학생의 29.5%, 여학생의 14.4%는 고등학생 이하인 19세 미만에 첫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자 중 성관계 파트너 수는 평균 남학생 5.08 ± 6.21세, 여학생 1.85 ± 1.51명이었으며, 남학생의 성관계 파트너 수는 2명 이상이 전체의 84.3%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성관계 파트너 수는 1명이 55.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경험자 중 성관계 시 피임법은 남학생의 97.7%가 사용한 반면 여학생은 45.4%로 차이가 있었으

며, 임신경험은 남학생은 3.2%가 임신을 시킨 경험이 있었으며, 여학생은 임신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자 중 생식기 질환 경험은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24.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N = 528)**

Variable	Category	Male (n=283)	Female (n=245)
		M ± SD	M ± SD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Total	2.99 ± 0.27	3.04 ± 0.19
	Psycho-social reproductive health	3.14 ± 0.31	3.08 ± 0.31
	Genital health management	2.95 ± 0.30	2.99 ± 0.24
	Reproductive ability health management	2.79 ± 0.36	2.71 ± 0.29
	Safe sex	3.26 ± 0.43	3.29 ± 0.42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10.59 ± 1.44	10.88 ± 1.33
Exposure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2.24 ± 0.65	1.66 ± 0.50

**2. 남녀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생식건강지식 및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점수는 전체 평균 남학생 2.99점, 여학생 3.0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하부요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안전 성행위가 3.26점, 정신사회적 생식건강 3.14점, 생식기 관리 2.95점, 생식능력 건강관리 2.79점 순이었다. 여학생은 안전 성행위가 3.29점, 정신사회적 생식건강 3.08점, 생식기 관리 2.99점, 생식능력 건강관리 2.71점 순이었다. 대학생의 생식건강 지식과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생식건강 지식은 남학생 10.59점, 여학생은 10.88점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콘텐츠 노출 정도는 남학생 2.24점, 여학생 1.66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성경험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

일반적, 성경험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먼저, 남학생의 일반적, 성경험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전공, 첫 성경험연령, 생식기질환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과학계열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다(F = 4.39, p = .005). 첫 성경험 연령은 고등학생 이하인 19세 미만이 19세 이후인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으며(t = 2.93, p = .004), 생식기질환 경험이 없는 경우가

**Table 3.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by General and Sexual Characteristics among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N = 528)**

Characteristic		Male (n = 283)		Female (n = 245)	
		M ± SD	t or F (p)	M ± SD	t or F (p)
Age (yr)	≤ 21	2.96 ± 0.23	-0.13 (.894)	3.04 ± 0.20	0.29 (.771)
	≥ 22	2.97 ± 0.26		3.03 ± 0.18	
Major	Humanities & social <sup>a</sup>	3.06 ± 0.29	4.39 (.005)	3.02 ± 0.79	0.92 (.430)
	Public, Medical & Nursing <sup>b</sup>	3.04 ± 0.19		3.05 ± 0.19	
	Science <sup>c</sup>	2.95 ± 0.26		3.00 ± 0.20	
	Others <sup>d</sup>	2.92 ± 0.26		2.99 ± 0.21	
	Scheffe			a > c	
Sexual intercourse	No	2.96 ± 0.23	-1.18 (.241)	3.04 ± 0.17	0.58 (.560)
	Yes	3.01 ± 0.28		3.03 ± 0.22	
Onset of sexual intercourse	< 19	3.09 ± 0.32	2.93 (.004)	2.86 ± 0.21	-3.31 (.001)
	≥ 19	2.97 ± 0.25		3.06 ± 0.20	
Number of sex partner	1 <sup>a</sup>	3.05 ± 0.21	1.55 (.214)	3.08 ± 0.17	10.46 (<.001)
	2-4 <sup>b</sup>	2.97 ± 0.24		3.00 ± 0.23	
	≥ 5 <sup>c</sup>	3.03 ± 0.33		2.67 ± 0.19	
	Scheffe			a > b, c / b > c	
Contraceptive practice	No	3.06 ± 0.25	0.69 (.492)	3.07 ± 0.17	1.49 (.140)
	Yes	3.03 ± 0.29		3.01 ± 0.25	
STD history	No	3.02 ± 0.27	2.99 (.003)	3.04 ± 0.22	1.24 (.217)
	Yes	2.78 ± 0.25		2.98 ± 0.19	

있는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다( $t=2.99, p=.003$ ).

여학생의 일반적, 성격형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첫 성경험 연령과 성관계 파트너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 성경험 연령은 19세 이상이 19세 미만의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으며( $t=-3.31, p=.001$ ), 성관계 파트너 수는 1명이 2명 이상의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으며, 성관계 파트너 수가 2-4명의 경우가 5명 이상의 경우 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다( $F=10.46, p<.001$ ).

**4.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제 변수 간의 관계**

생식건강증진행위와 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첫 성경험 연령, 생식건강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즉, 첫 성경험 연령이 어릴수록( $r=-.19, p=.003$ ),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r=.20, p=.002$ )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성관계 파트너 수, 첫 성경험 연령, 생식건강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즉, 성관계 파트너수가 적을수록( $r=-.39, p<.001$ ), 첫 성경험 연령이 많을수록( $r=.28, p=.003$ ),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r=.22, p=.015$ )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와 이와 관련된

**Table 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and the Related Factors: Male Undergraduate Students (N = 283)**

	Onset of sexual intercourse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Exposure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r (p)	r (p)	r (p)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24 (<.001)		
Exposure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14 (.027)	0.18 (.005)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19 (.003)	.20 (.002)	.10 (.085)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productive Health Behavior and the Related Factors: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N = 245)**

	Number of sex partner	Onset of sexual intercourse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Exposure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r (p)	r (p)	r (p)	r (p)
Onset of sexual intercourse	-.40 (<.001)			
Reproductive health knowledge	-.21 (.021)	.09 (.199)		
Exposure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09 (.182)	-.24 (.008)	.06 (.285)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39 (<.001)	.28 (.003)	.22 (.015)	-.12 (.117)

요인을 파악하여 남녀대학생의 올바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의 성격형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76.7%, 여학생의 39.6%가 성격형이 있었다. 이는 남학생의 49.8%, 여학생의 7.5%가 성격형이 있었던 Ahn 등(2008)의 연구와 차이가 매우 있었으며,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통해 조사한 Shin 등 (2010)의 남녀대학생의 평균치인 38.1%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Sohn (2014)의 연구에 의하면 성격형자가 13.7%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가 있었지만 본 연구대상자와 같은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Jo (2014)의 남학생 62.0%, 여학생 33.7%가 성격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비교적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과 매체를 통한 성의 빠른 개방화를 반영해 주고 있으며, 이전의 혼전 순결과 같은 사회적 통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의 성격형 비율이 2010년 13%에서 39.6%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첫 성경험 연령이 남학생은 19.25세, 여학생은 19.81세였다. 특히 남학생의 29.5%, 여학생의 14.4%가 고등학생 이하인 19세 미만에 첫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성경험 시기가 평균 19.3세로 나타난 Shin 등 (2010)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성경험이 38.1%로 보고한 Sohn (2014)의 연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68.2%, 여학생의 85.6%가 19세 이상에서 첫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성행위를 시작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Kim, Park, Park, & Yun, 2011). 그러나 주의할 것은 많은 대학생들이 안전하지 않은 성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병감염, 원치 않는 임신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Shin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24.7%가 이전에 생식기 질환을 경험하였으며, 남학생의 3.2%가 임신을 시킨 경험이 있었다. 국외에서도 가장 위험한 성행위를 많이 시도하는 결정적 시기가 대학생 시기로 나타나(Eisenberg, Garcia, Frerich, Lechner, & Lust, 2012), 이 시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질환에 따라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치료가 늦어질 수 있고,

치료지연에 따른 건강문제 및 불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성생활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현 시점에서 생식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성병 감염을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 행위는 남학생 2.99점, 여학생 3.04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Jo (2014)의 남학생 3.2점, 여학생 3.2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요인별로는 남학생은 안전 성행위 3.26점, 정신사회적 생식건강 3.14점, 생식기 관리 2.95점, 생식능력 건강관리 2.79점 순이었다. 여학생은 안전 성행위가 3.29점, 정신사회적 생식건강 3.08점, 생식기 관리 2.99점, 생식능력 건강관리 2.71점 순이었다. Jo (2014)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생식기 관리와 정신사회적 생식건강이, 여학생은 정신사회적 생식건강과 안전 성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안전 성행위는 성병 예방과 성행위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안전한 성행위가 포함된 개념으로 남학생의 76.7%, 여학생의 39.6%가 성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적으로 활발한 대학생 시기임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중요하게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Shin 등(2010)의 연구와 같이 흡연, 음주, 약물복용,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생식능력 건강관리에 대한 행위에 대한 수행이 남녀 대학생 모두 낮았는데, 이는 건강행위와 생식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볼 수 있다.

생식건강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질병이나 불구가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향유할 수 있고 자녀의 출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 총체적 건강을 말한다(WHO, 2013).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성행위와 생식기의 위생적 관리와 성병 예방을 포함한 생식기 건강관리, 금연, 규칙적 운동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포함한 생식능력 건강관리, 성정체감과 성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정신사회적 생식건강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Jo, 2014). 따라서 남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을 높이기 위하여 성행위가 가장 활발하고 위험 성행동을 많이 하는 대학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적 관점과 성행위를 포함한 생식건강과 관련된 총체적인 측면에서 생식건강증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식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여학생에 비해 낮은 남학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여학생에게는 남학생보다 낮았던 정신사회적 생식건강과 생식능력 건강관리 요인을 보다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

대학생의 생식건강 지식은 남학생이 10.59점, 여학생이 10.88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식건강 지식이 높았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해 보면 남학생은 81.5점, 여학생은 83.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 53.6점, 여학생 53.9점으로 나타난 Choi와 Ha (2004)의 연

구보다 매우 높았다. 또한 Cha (2009)의 72.6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생식건강 지식은 안전한 성행위와 생식기의 위생적 관리, 성병을 포함한 생식기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은 포함하였지만, 음주, 흡연, 운동, 영양 등을 포함한 생식능력 건강관리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생식건강 지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통해 이에 대한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성관련 콘텐츠 노출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관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콘텐츠는 남녀의 성관계 및 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매체들로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한 콘텐츠 노출은 음란물에 노출될 기회를 증가시키며 이는 성행위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Choi, 2009). 최근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 재개 이후 누구나 쉽게 19세 이상의 성인용 콘텐츠에 노출될 기회가 잦고, 이러한 요인이 대학생의 성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실증적 연구로서 Choi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미디어를 통한 성 표현물 노출이 잦을수록 음란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는 성 허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매체보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노출 시 성행동이 많이 나타나고(Lou et al., 2012), 어린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성의식이 왜곡된다(Kim, Yu, & Song, 2013)는 연구에 근거해 볼 때 음란물뿐 아니라 성관련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민감한 젊은 세대에 친근한 웹이나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한 생식건강 정보 전달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 성경험 특성에 따른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남학생은 전공, 첫 성경험연령, 생식기질환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과학계열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으며, 첫 성경험 연령은 19세 미만인 19세 이후인 경우 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다. 생식기질환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다. 여학생은 첫 성경험 연령과 성관계 파트너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첫 성경험 연령이 19세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 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으며, 성관계 파트너 수는 1명이 2-4명, 5명 이상인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으며, 성관계 파트너수가 2-4명이 5명 이상인 경우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았다. 지금까지 연구들 중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본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와 유사한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밝힌 연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Shin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 음주, 운동, 규칙적인 식습관 등의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

인으로 성경험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즉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를 잘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hn 등(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이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흡연, 음주, 무리한 체중감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규칙적인 운동을 남학생보다 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성경험과 성별의 특성이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 첫 성경험 연령, 성관계 파트너 수, 생식기 질환과 같은 요인이 추가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후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성경험 특성을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남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첫 성경험 연령, 생식건강 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첫 성경험 연령이 어릴수록,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성관계 파트너 수, 첫 성경험 연령, 생식건강 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성관계 파트너 수가 적을수록, 성경험 연령이 많을수록,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인은 첫 성경험 연령과 생식건강 지식이었다. 첫 성경험 연령은 남학생에서는 어릴수록, 여학생은 연령이 많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첫 성경험 연령이 어릴수록 다수의 성파트너를 가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성행동이 높고(Seidman, Mosher, & Aral, 1994), 청소년 임신과 성병 발생률이 높을 수 있다(Grunseit, Richters, Crawford, Song, & Kippax, 2005).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첫 성경험이 어릴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첫 성경험 연령과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차이는 이후 인터뷰나 좀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의식, 결혼과 출산, 성충동, 피임 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성행동이 긍정적임을 볼 때(Woo, & Ka, 2005),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성교육 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난 Kim (2003)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 수행 시 성별에 따른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중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결과 남·여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는 성별에 따라 관련 요소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식건강 상담이나 교육,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이들 특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식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 및 그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남학생의 76.7%, 여학생의 39.6%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 생식기 질환 경험도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24.7%가 있었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정도는 남학생은 2.99점(4점 만점), 여학생은 3.04점(4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생식건강증진행위 총 점수는 높았지만 정신사회적 생식건강과 생식능력 건강관리 요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첫 성경험 연령이 어릴수록,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성관계 파트너 수가 적을수록, 성경험 연령이 많을수록, 생식건강 지식이 높을수록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는 첫 성경험 연령과 생식건강 지식과 같이 공통적으로 관련된 요인이 있었지만 여학생은 성관계 파트너 수가 남학생과 달리 다른 요인도 있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의 수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남녀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여 생식건강증진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남·여대학생의 생식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상담이나 교육 시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hn, S. H., Park, I. S., Han, J. S., Kim, T. I., Kwak, M. S., & Chung, H. S. (2008). Health behaviors, reproductive health history, and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3), 205-212.
- Cha, Y. K. (2009).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sexual education, internet use and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focused overseas Koreans and ordinary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dong University, Kyungbook.
- Choi, M. I. (2009).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2), 49-69.
- Choi, M. S., & Ha, N. S. (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Eisenberg, M. E., Garcia, C. M., Frerich, E. A., Lechner, K. E., & Lust, K. A. (2012). Through the eyes of the student: what college students look for, find, and think about sexual health resources on campus.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9(4), 306-316. doi.org/10.1007/s13178-012-0087-0
- Eaton, D. K., Kann, L., Kinchen, S., Shanklin, S., Flint, K. H., Hawkins, J., et al. (2012).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11.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61(4), 1-162.
- Grunseit, A., Richters, J., Crawford, J., Song, A., & Kippax, S. (2005). Stability and change in sexual practices among first year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1990-1999).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4(5), 557-568. doi.org/10.1007/s10508-005-6281-x
- Jeon, G. S., Lee, H. Y., & Rhee, S. J. (2004).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1(1), 45-68.
- Jo, H. Y. (2014). *Development of measurement tools for reproductiv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Kang, N. E., Kim, J. H., & Yoon, H. R. (2012).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eight management, balanced food intake, knowledge of obesity, and nutrition knowledge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ood Culture*, 27(6), 759-768. doi.org/10.7318/kjfc/2012.27.6.759
- Kim, E. M., Yu, S. J., & Song, M. R. (2013).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 of Nursing*, 20(1), 18-26. doi.org/10.7739/jkafn.2013.20.1.18
- Kim, S. M. (2003). Knowledge on sexuality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9(4), 489-498.
- Kim, Y. H., Park, N. C., Park, H. J., & Yun, E. Y.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the timing of first sexual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in Busan, Korea. *Korean Journal of Andrology*, 29(2), 134-143. doi.org/10.5534/kja.2011.29.2.134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Realities and needs of physical, mental and socio-economic among infertility treatment of women. *Issue & Focus*, 74, 1-7.
- Lou, C., Cheng, Y., Gao, E., Zuo, X., Emerson, M. R., & Zabin, L. S. (2012). Media's contribution to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for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ree asian citi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0(3), S26-S36. doi.org/10.1016/j.jadohealth.2011.12.009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on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3(2), 178-204. doi.org/10.1177/0093650205285369
- Seidman, S. N., Mosher, W. O., & Aral, S. D. (1994). Predictors of high-risk behavior and drug invol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783-798.
- Shin, K. R., Park, H. J., Bae, K. E., & Cha, C. Y. (2010).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Adult Nursing*, 22(6), 624-633.
- Sohn, A. (2002). Health risk-taking behaviors and risk of adolescent alcohol use and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3(1), 5-14.
- Sohn, A. R. (2014). Analysis on drinking behavior, gender role stereotype, and sexual behavior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5(2), 103-110.
- Woo, N. S., & Ka, Y. H. (2005). A study on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2), 113-133.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December). Reproductive health. Retrieved December 1, 2013,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eb site: [http://www.who.int/topics/reproductive\\_health/en/](http://www.who.int/topics/reproductive_health/en/)